



지부교섭 속보

기본급 159,614원 인상!
통상임금 현실화
임금체계 개악 저지!
자녀돌봄휴가 쟁취

제05호 / '14.5.23(금)

□발행처:선전부 □발행인:조민제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교섭은 못열리고 전진대회 진행

사측 3개사만 참가

5차 지부교섭이 사측 성원부족으로 무산됐다. 22일(목) 14시 코스모링크에서 열린 5차 교섭에 참가한 회사는 3개 회사에 불과했다.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3개 회사가 참여하지 않아, 결국 교섭이 열리지 못했다. 지난 교섭에서 사측 제시안을 요구했지만, 이번 교섭에서 제시안도 나오지 않았다. 지난 교섭까지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마치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이 대다수 사측 교섭위원들이 해외출장 등을 핑계로 교섭에 나오지 않는 상황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사측이 올해 교섭을 조속히 원만하게 풀어나갈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부 교섭위원 투쟁결의 다져

교섭 결렬 후 지부 교섭위원들은 전진대회를 열었다. 약식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교섭위원들 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2014년 투쟁 승리를 결의하는 족구대회를 진행했다. 족구대회를 통해 약간은 서먹서먹하던 교섭위원들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다. 올해 지

부는 통상임금과 노조과파 문제를 핵심 화두로 투쟁을 전개한다. 두가지 문제 모두 사업장만의 싸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교섭위원들을 중심으로 지부가 단결하여 싸우지 않으면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이번 교섭위원 전진대회는 올해 투쟁은 제대로 싸워보자는 교섭위원들의 결의가 모아지는 자리였다.

한주 쉬었으니 제시안 갖고 오길

벌써 두차례의 질의응답이 끝났고, 이번주 교섭은 열리지 못했다. 결국 사측은 질의응답 이후 2주 동안의 시간을 벌었다. 그렇다면 심사숙고하여 만족할만한 제시안을 갖고 나타나야 할 것이다. 어느 때보다 고민할 시간이 많았을 것이다. 사측의 성의있는 제시안을 기대해 본다.

차기 교섭은 교섭장소 문제로 인해 실무에서 협의키로 했다.

5차 교섭 속기록

성원도 안되고, 아무런 제시안도 없다

사회 : 오늘 시측 성원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섭은 속개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그래도 코스모링크까지 찾아왔는데 사업장 대표 인사를 들어보겠다.

사 : 먼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날씨도 벌써 한여름이다. 많이들 바쁘실텐데 감사하게 생각한다. 오늘 교섭 성원이 부족한데, 이상하게 저희 회사에서 진행되는 날 빠져서 저도 기운이 안난다. 교섭이 안되더라도 좋은 말씀 있으면 전달해달라.

노 : 제시안도 없고, 성원도 안된다. 교섭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 코스모링크 인사말 들은 것으로 마쳤으면 좋겠다.

사회 : 노사간 동의하시나?

노 사 : 그렇다.

사 : 다음 교섭장소가 KDK인데, 북부지역지회장(KDK 분회장)이 재수술을 해서 병가를 낸 상황이다. 지회장도 없는 상황인데, 다음 교섭순서를 지회장이 복귀한 다음으로 했으면 한다.

노 : 원칙적으로 지회장이 안계셔도 조합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KDK에서 교섭하는 게 맞다.

사회 : 차기 교섭은 실무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다.

전 조합원 총단결로

2014투쟁 승리하자!